

## 그날을 기대합니다

- 정한샘 스가사

즐겁고 복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래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, 우리 속에 살아 계신 성령님께, 사랑 밖에 하실 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눈물을 올려드리며...

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원의 한 토막, 2023년 끝자락에서 다가올 2024년 새해를 기대하며 간~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~

\*오~아버지!!

새해에는 이 한반도 땅에 기적을 주십시오!!

울부짖는 기도소리에 응답해주십시오!!\*

저희는 지금 전남 함평에 와있습니다. 잘 아시는 스가사님이 함평에 스가관을 운영하시어 몇차례 들렸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비어 있는 집을 구해 이사를 오는 중에 있어요.

함평읍과 가까운 거리에 어느 할머니님이 평생 사시다 돌아가신 집인데 몇년간 빈 채로 있던 집이라 그 묵은 짐과 쓰레기는 상상을 초월했지요. 그러나 월세가 워낙 싼데다 짐이 쓸만하여 도배 장판하고 전등을 바꾸니 새집이 되어 만족이 만땅입니다. 물론 문을 열고 나가 건물 위를 보면 함석이 당장 떨어질 것 같으나... 그래서 아주 살살 살아가고 있지요.

함평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젤로 싼 곳이라요 그러나 이젠 고속철이 지나가니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들이 솔솔 있네요 30가구쯤 모여 사는 우리동네에 젊은이가 왔다며 우리들을 반겨 주시고...

교회 또한 마찬가지로인데 첫날 새벽예배 후 부르짖어 주어 3창 시작으로 기도하시는, 특히나 시골에서 흔치 않은 목사님 뵈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. 울며 불며 소리 내어 기도하는 저를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보살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~!!



얕든 78에 불 지피러 왔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를 아주 많이 환대하셔요, 그 분들 젊으셨을 때 모두 78로 사시며 농사 지어 자식들 도시로 내보내어 교육시키신 분들이시거든요.

저는 새벽에 또 낮에 언제든지 제걸음으로 300보 되는 거리에 있는 78에 수시로 드나들며 마음껏 기도하며 또한 넓은 들판 위로 펼쳐진 하늘의 그림을 풍성히 즐기면서 꿈에서도

생각지도 못했던 큰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.

가난한 땅 이곳에서 육신의 힘도 빠진 마른 노구의 가난한 심령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기만해도 저희 살 속 깊이 덕지덕지 묻혀 있는 세상때가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가는 듯해 너무 너무나 신나고 행복합니다.

아직 서울 집 기한이 다 안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곳으로 완전 합류할 생각이예요, 서울에서의 기도모임들은 줌으로 하면서 한편 남편은 어설프지만 닭장도 만들어 진도에 와 계신 허춘 권사님이 보내주신 닭도 길러 신선한 알도 먹고 있지요,

비한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로 몇 년째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 내야 하는 부담에 많이 지쳐서 숨통이라도 트자고 생각한 일인데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, 그리고 또한 서울에서 이리 먼 시골에 살아본 일이 없는 저희에게 대만쪽을 주시어 감사하면서 가난과 풍족을 동시에 풍성히 풍성히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.

이 모든 일들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생긴 변화들이예요 그러나 늘 저희 앞날을 위해 기도해왔기에 의심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

어디가 우리 삶의 종착역이 될까요?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100% 신뢰하며 설렌 마음으로 그 날도 기대합니다!!!

이 삼 년이면 비한이 열릴거라고 내다 보시는 분들의 예언과 저희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곧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지금부터는 저희의 믿음의 싸움과 몸으로 견디며 살아 내기를 이 함평에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..

우리 모두 이제까지와 같이 늘 깨어 분별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더더욱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...

새해에

하나님 아버지가 부으시는 은혜 많이 많이 받아 풍성히 나누며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~~